

## 자금성과 세계: 문화의 조우

5천 년을 이어온 중국 문명은 개방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오랜 시간 중국 사회와 문화의 생명력을 지탱한 원동력이었다. 명(1368~1644)·청(1644~1911) 왕조는 선대의 통치 체계와 도덕적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외교와 무역을 펼쳐 다양한 지역 및 공동체와 만나면서 문화 간 대화와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촉진하였다. 명·청 황실의 궁전이었던 자금성은 정치권력의 중심지이자 중국과 세계를 잇는 교류의 장이었다. 자금성의 건축과 유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는 역사의 흔적이 깃들여 있고, 자금성의 역사는 상품·기술·예술·사상·문화의 흐름이 500여 년간 오가며 써 내려간 문화 교류의 기록이다. 이러한 주고 받음 속에서 세계 문명에는 창조와 변화의 새바람이 불었다.

이번 전시는 홍콩고궁박물관과 고궁박물관이 공동 주최하고, 홍콩자키클럽(홍콩마사회) 자선신탁이 후원한다.

## 교류의 길: 마르코 폴로와 정화

중국의 육상과 해상 교역로는 원(1271~1368)·명(1368~1644) 시대에 전성기를 맞았다.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Marco Polo, 약 1254~1324)가 걸었던 육상 실크로드와 이후 명나라 사절 정화(鄭和, 1433년 사망)가 항해한 해상 교역로는 명·청 시대에도 중국과 세계를 잇는 교류의 대로였다. 원대에는 해외로 이어지는 육상 교통로가 개방되어 교류가 활발하였기에 마르코 폴로도 실크로드를 따라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 끝에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발걸음을 기록한 여행기에 당시 번영하던 대도(大都, 오늘날의 베이징)의 모습을 남겨 놓았다. 이 무렵 서아시아의 법랑 기법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현지화를 거쳐 전통 장식 공예의 한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원대와 명 초기에 청화백자 문양에 사용한 코발트 안료 역시 서아시아에서 수입되었다. 당시 중국 도자의 형태와 장식은 중국과 서아시아·중앙아시아가 나눈 활발한 교류의 생생한 증거이다. 정화는 1405년 첫 항해에 나선 이후 일곱 차례의 대원정을 이끌며 동남아시아·남아시아·아프리카의 30여 개 국가와 지역을 방문하였다. 정화의 함대에 실린 비단과 각종 예물은 바다 건너에서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았고, 중국이 대외 교류의 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바다 건너온 보물: 명대 궁정 예술과 새로 만난 세계

17세기 이후 황실에 전해진 해외의 새로운 지식과 문물은 궁정 문화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다. 명(1368~1644) 왕조는 14세기 말부터 민간의 대외 무역을 제한하였으나, 융경제(隆慶帝, 재위 1567~1572) 시기가 되자 푸젠성 장저우의 항구 월항(月港)을 개방하여 해외 무역을 공식 허용하였다. 개항을 계기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꾸준히 유입된 진귀한 재료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중국의 예술과 생활 문화에 새로운 색을 더했다. 단단한 열대 목재를 수입하여 제작한 가구는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황실까지 진출하여 청 초기 궁정 가구의 기준이 되었다. 황실 장신구와 장식 공예에 사용된 물총새 깃털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들여왔고, 오늘날의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산출된 루비·사파이어·토르말린 등의 보석과 현재 미얀마 지역에서 가져온 경옥은 황실 장식품과 사치품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여겼다. 동남아시아산 향신료도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1601년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는 자금성에 세계지도를 들여와 세계 지리와 박물학 지식을 황실에 소개하였다. 덕분에 이후 청 궁정에서 편찬한 《조류보(鳥譜)》와 《수류보(獸譜)》 같은 도록에 실린 이국의 동식물 그림은 전에 없던 수준의 정밀함이 돋보인다.

## 동서의 만남: 청대 예술과 과학 교류

청나라 강희제(재위 1662~1722)·옹정제(재위 1723~1735)·건륭제(재위 1736~1795) 시기에는 중국과 세계 간 교류가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예 기술이 발달하고 신기술의 수용 또한 크게 늘었다. 유럽 선교사가 황실에 소개한 수학·천문학·지리학 등 신학문은 중국의 회화, 화법랑(畫珪瑯) 제작, 유리 공예 등 다양한 예술·공예 분야에서 유럽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의 과학에 큰 흥미를 보인 강희제는 유럽에 견줄만한 기술을 구현하고자 유리와 법랑 제작 발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옹정제는 일본 철기에 관심이 상당하여 류큐에서 진상한 일본도를 참고해 황실 호위대의 무기 제작을 명하기도 하였다. 건륭제 시대에 들어서자, 중국과 해외의 전통이 융합되면서 궁정 예술 제작의 다양한 분야는 기술적 완성 단계에 도달하였고, 그 성과 또한 절정에 이르렀다.

## 황제의 남쪽 보물창고: 광동해관과 세계

18세기 광동해관(粵海關)은 중국 대외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청 조정은 1685년 광둥·푸젠·저장·장쑤 지역에 해관을 설치하였다. 1757년에는 중국 남부 광저우를 외국 상인에게 개방된 유일한 항구로 지정하였고, 현지 공인 무역 상단인 십삼행(十三行)이 중국과 해외 국가 간 무역을 독점 담당하였다. 광동해관의 감독관은 황실 재정을 담당하던 내무부 관원 가운데 임명하였기에, 광동해관의 별칭은 ‘황제의 남쪽 보물창고’였다. 해관에서는 비단·차·도자기 등 중국 상품의 수출을 관리하고 관세를 거두어 국가 재정의 중요한 수입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십삼행 소속 상인은 자단목 가구와 코담배(鼻煙), 시계, 과학 기구, 거울 등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진귀한 물품을 황실에 공급하였다.

## 과거를 딛고, 미래를 빛다

명·청 시대 자금성과 세계 간 문화 교류는 육상 실크로드와 확장일로의 해상 교역로를 따라 활발하였다. 이러한 교류의 기록은 외교·예술·기술·사상·문화 전반에서 발생한 일종의 문명 간 대화록이다. 명·청 황실이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인 흔적은 원대의 경태람(景泰藍)부터 청 궁정의 유럽식 시계까지 생생하며, 정화의 대규모 원정 항해를 시작으로 광동해관을 통한 수출 무역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동시에 비단, 도자기, 차 등 중국의 귀중품 역시 세계 곳곳으로 퍼졌다. 문명은 서로 교류하고 배우면서 다채롭고 풍성해져 인류 번영과 세계의 평화·발전을 이끄는 주역이 된다. 이번 전시는 자금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수 세기 동안 이어진 세계 교류의 흐름을 되돌아보고, 서로 다른 문명이 상호 이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공영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